

張錫純의 藥物運用에 關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馬海眞¹ · 丁彰鉉^{1*}

A Study on Jangseoksun(張錫純)'s use of Herb Remedies

Ma Hae-jin¹ · Jeong Chang-hyun^{1*}

¹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results of researching Jang's use of herb remedies through his book 『Uihakchungjungchamseorok(醫學衷中參西錄)』 are as follows.

1. Jang Seoksun's medicine is based o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Sanghanron(傷寒論)』,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And through constant study he brought to perfection his own unique medical theory.

2. He introduced Western medicine, and united it with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 perfected the Chinese-Western medical theory, by Chungjungchamseo(衷中參西) which means 'roots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ference in Western medicine'.

3. He thought Onbyeong(溫病) was not an independent category of disease, but included it into the category of Sanghan(傷寒). So he used modified prescription of 『Sanghanron(傷寒論)』 to treat Onbyeong(溫病).

4. He expanded the category of remedy uses by using various compounds, such as minerals and animal compounds. He has also developed substitute remedies.

Key Words : Jangseoksun(張錫純), Uihakchungjungchamseorok(醫學衷中參西錄), Chungjungchamseo(衷中參西), Onbyeong(溫病)

I. 序論

張錫純은 清代 末期 中西醫匯通派의 대표적인 인물로 大氣論과 腦充血論, 腦貧血論 등의 醫論을 제창

* 교신저자 : 丁彰鉉.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jeongch@khu.ac.kr Tel: 02-961-0337

접수일(2010년 4월 20일), 수정일(2010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2010년 5월 20일)

한 醫家이다. 그는 오랜 臨床經驗과 끊임없는 研究를 통해 西洋醫學을 수용하면서도 韓醫學의 本質을 잃지 않는 등의 獨創의인 見解를 제기하여 醫學史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 研究는 張錫純의 醫學思想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藥物運用의 特徵과 이에 대한 意義를 찾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1. 張錫純의 生涯와 著作

張錫純(1860~1933)은 字는 壽甫이며 河北省 鹽山縣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學者 집안으로 後世 子孫들은 공부 하는 것 외에 醫學을 배우라는 祖父 友三公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서부터 儒學과 醫學을 함께 공부하였으며 두 번의 과거시험을 낙방한 후에 본격적으로 醫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100여 種에 이르는 醫書를 수집하여 보았다고 한다¹⁾. 辛亥革命 이후 德州의 駐在軍 總領인 黃某氏의 招聘에 의해 軍醫가 되어 武漢으로 이주한 이후에 醫術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고, 1918년에는 沈陽에서 立達中醫院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그의 醫術은 이미 국내에 이름을 떨치고 있어 江蘇의 陸晉笙, 楊如候, 廣東의 劉蔚楚와 함께 醫林四大家로 이름을 떨쳤으며, 慈溪의 張生甫, 嘉定의 張山雷와 더불어 海內三張, 三張三達이라 불리기도 했다²⁾. 말년에 그는 後學을 가르치는데 힘썼는데, 國醫函授學校를 설립하여 500여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낮에는 診察을 하며 밤에는 冊을 著述하다 過勞로 病을 얻어 1933년 8월 사망하게 된다³⁾.

張錫純의 著作은 그가 사망한지 6년 후 天津에 발생한 洪水로 모두 소실되고⁴⁾, 현재는 『醫學衷中參西錄』과 『和菊軒詩草』⁵⁾가 남아있다. 『醫學衷中參西錄』은 張錫純이 1918년에 第 1期를 시작으로 1919년에 第 2期, 1924년에 3기와 4기, 1928년에 5기, 1931년에 6기, 1934년에 7기까지 총 1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판한 의서이다⁶⁾. 『醫學衷中參西錄』은 醫論, 藥物, 處方, 醫案 등을 모두 포괄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로 그의 醫學的 成果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존의 관련 연구

張錫純이 清代 末期 中西醫匯通派의 대표적인 인물로 後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研究가 상대적으로 不足한 실정인데, 禹昊는 張錫純의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를 통해 張錫純의 學術思想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하였고, 金亨泰는 張錫純의 大氣論에 대한 考察을 통해 大氣의 形成과 機能 및 大氣의 機能失調로 인한 病因病機에 대해 論하였다. 또한 金鎮玉은 張錫純의 肝病治療에 관한 研究를 통해, 朴基兌는 張錫純의 心の 生理에 대한 闡發을 통해 『醫學衷中參西錄』 5期 3卷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臟腑의 生理와 病理, 治法 등에 대해 論하였다. 그리고 張祐彰은 張錫純의 『傷寒論講義』 研究를 통해 寒溫의 질證, 陰虛陽盛, 上盛下虛 등을 중심으로 張錫純의 醫學思想에 대해 論하였다. 『醫學衷中參西錄』은 국내에서 全文이 출판이 된 것은 없고, 東新大學校 卒業準備委員會에서 3기와 6기를 번역한 譯書가 출판되었다.

3. 研究방법

2006년 河北科學技術出版社에서 출판한 『醫學衷中參西錄』을 주교재로 하고 2003년 河北科學技術出版社에서 출판한 張錫純醫方精要和 2004년 學苑出版社에서 출판한 張錫純醫案을 참고하여 張錫純의 醫學思想에 대한 考察과 동시에 用藥法의 特徵을 밝히고자 하였다. 藥物運用의 特徵에서 언급한 本草의 氣味와 效能, 常用 藥對 등은 되도록 『醫學衷中參西錄』에서 張錫純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미진한 내용은 다른 本草書와 論文 등을 참고하여 보충하고자 하였다.

1)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 1期 卒業準備委員會. 醫學衷中參西錄. 서울. 醫聖堂. 1999. p.9.
2) 김기욱, 김남일 외.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341-342.
3) 禹昊. 張錫純의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1996. p.4.
4) 朴基兌. 張錫純의 心病理論과 證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2008. p.1.
5) 『和菊軒詩草』은 遺稿作으로 1957년 『醫學衷中參西錄』 第 8期로 출판되었다.
6)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 1期 卒業準備委員會. 醫學衷中參西錄. 서울. 醫聖堂. 1999. p.7.

II. 本論

1. 張錫純 醫學思想의 배경

張錫純은 『醫學衷中參西錄』의 自序에서 “『本經』과 『內經』은 세상을 다스림에 천지개벽의 聖神이 쓰신 책이니 이것이 醫學의 原祖이고 실로 醫學의 깊은 근원임을 알 수 있다. 漢代에 이르러 張仲景이 나타나 『傷寒』과 『金匱』 두 책을 지었는데 이것은 『本經』과 『內經』의 功臣이다. … 우리나라의 醫學은 매우 발달하여 人才들을 배출하였는데, 張志聰, 徐大椿, 黃元御, 陳念祖 등과 같은 현인들은 張仲景을 통해서 『內經』과 『本經』을 연원으로 하였으므로 그들이 저술한 책들은 모두 의학의 모범이다.”⁷⁾라고 하여 本人의 醫學思想이 『內經』과 『傷寒論』, 『神農本草經』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黃帝內經』의 내용을 중시

앞서 언급을 했듯이 張錫純은 자신의 醫學의 뿌리는 『內經』과 『傷寒論』, 『神農本草經』에 根據하고 있음을 밝혔다. 『醫學衷中參西錄』에서는 인체의 生理, 病理, 治法에 이르는 많은 부분에 『內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本人의 醫學을 說明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大氣⁸⁾에 대해 설명하면서 “大氣가 곧 宗氣라고 한 것은 역시 『內經』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素問』 平人氣象論에서 말하기를 ‘胃經의 大絡을 이룸 하여 虛里라고 하는데, 橫膈膜을 뚫고 올라가 肺에 연락되고, 왼쪽 젖가슴 아래로 출현하는데, 그 搏動함이 옷에 응하니, 脈中의 宗氣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덧붙이자면 虛里之絡은 胃에서 水穀之氣를 胸中으로 보내 大氣를 기르는 道路로서 橫膈

膜을 뚫고 올라가 肺에 연락되고, 다시 왼쪽 젖가슴 아래로 나와서 脈動이 되니 이 脈動은 곧 大氣之餘波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宗氣라고 한 것은 宗氣는 곧 大氣로서 後天生命의 宗主가 되기 때문에 이를 높여 宗氣라고 하였다. 그리고 絡을 虛里라고 한 것은 橫膈膜을 뚫고 올라가 肺에 연락되어 가슴 속이 비어 있는 곳을 游行하기 때문이다.”⁹⁾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內經』의 원문을 이용해 大氣가 곧 宗氣를 가리키는 것임을 主張했다.

또한 그는 「論腦貧血治法」에서 “內經에서는 ‘上氣不足, 腦爲之不滿’이라고 하였는데, 이 두 구절은 腦貧血의 原因과 더불어 腦貧血의 治法을 밝힌 것이다. 血은 心臟에서 생성되어 腦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血은 스스로 뇌로 가지 못한다. 內經에서 얘기하는 宗氣는 胸中에 쌓여 있는 宗氣를 말하고 心脈을 관통함으로써 呼吸을 行하게 되는데 여기서 胸中의 宗氣는 呼吸의 中樞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心臟이 腦에 血脈을 운송하는 中樞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內經』의 두 구절을 참고하면 上氣라고 하는 것은 宗氣가 상승하는 것을 가리키고, 上氣不足腦爲之不滿이라고 한 것은 宗氣가 心脈을 관통하지 못해 위로 상승하지 못해, 腦中の 氣血이 모두 不足하게 된 것이다.”¹⁰⁾라고 하면서 腦貧血에는 原因을 宗氣가 虛한 것으로 보았고, 치료 역시 血을 補하는 것보다 氣를 크게 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張錫純은 「治陰虛勞熱方」의 資生湯에서

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2. : “知本經與內經, 治之開天辟地之聖神, 爲醫學之鼻祖, 實卽爲醫學之淵海也. 迨漢季張仲景出, 著傷寒金匱兩書, 爲本經內經之功臣. … 國朝醫學昌明, 人才輩出, 若張志聰, 徐大椿, 黃元御, 陳念祖諸賢, 莫不率由仲景上溯本經內經之淵原, 故其所著醫書, 皆爲醫學正規.”

8) 金亨泰, 尹暢烈. 張錫純의 大氣論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1. 14(2). p.14. : 大氣는 胸中에 쌓여 呼吸을 주관하고 精神을 振作하며 心思와 腦力을 증진시키고 五官과 百骸의 動作을 추진하는 氣로서 後天諸氣의 綱領이 되고 全身血脈의 綱領이 되는데, 內經에서 말하는 宗氣가 이에 해당한다.

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49. : “至大氣卽宗氣者, 亦嘗考內經而得之. 素問平人氣象論曰, 胃之大絡名虛里, 貫絡肺, 出于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 按虛里之絡, 則胃輸水穀之氣于胸中以養大氣之道路, 而其貫絡肺之餘, 又出于左乳下爲脈動, 是此動脈當爲大氣之餘波, 而曰宗氣者, 由是知宗氣卽是大氣, 爲其爲後天生命之宗主, 故又尊之曰宗氣. 其絡所以名虛里者, 因其貫絡肺, 游行于胸中空虛之處也.”

1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95. : “內經則謂, 上氣不足, 腦爲之不滿. 此二語實能發明腦貧血之原因, 并已發明腦貧血之治法. 蓋血生于心, 上輸于腦. 然血不能自輸于腦也. 內經之論宗氣也, 謂宗氣積于胸中, 以貫心脈, 而行呼吸, 由此知胸中宗氣, 不但謂呼吸之中樞, 而由心輸腦之血脈管亦以之爲中樞. 今合內經兩處之文參之, 知所謂上氣者, 卽宗氣上升之氣也, 所謂上氣不足腦爲之不滿者, 卽宗氣不能貫心脈以助之上升, 則腦中氣血皆不足也.”

“或者가 묻기를 “당신이 ‘二陽之病發心脾’라는 한 구절을 해석한 것과 王氷이 『內經』을 주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王氷의 주해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대답하기를 “내가 사실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經文을 해석해 보았더니 經文에 별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과 또한 실용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二陽之病發心脾’와 그 아래의 ‘三陽爲病發寒熱’, ‘一陽發病少氣, 善咳, 善泄’은 句法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따귀서 해석할 수도 있다. ‘二陽之病發心脾’는 病이 心脾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三陽爲病發寒熱’은 三陽의 증상을 形容한 것이므로 ‘之病’의 ‘之’자를 ‘爲’자로 바꾼 것이다. ‘一陽發病’이후의 여러 구절은 그 구성방법이 ‘三陽爲病’ 이후의 구절과는 같지 않으나 그 이치는 같다.”¹¹⁾라고 하여, 『內經·陰陽別論篇』에 ‘二陽之病發心脾’라는 구절에 대해 새롭게 해석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張錫純은 그의 醫學의 뿌리를 『內經』에 두고 본인의 의학이론을 설명하였으며, 새롭게 들어온 西洋醫學에 대한 내용 또한 『內經』을 근본으로 하여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傷寒論』에 대한 獨創的 견해

『醫學衷中參西錄』의 3期 5卷과 5期 5卷, 7期 1, 2, 3, 4卷은 모두 傷寒에 대해 張錫純이 著述한 내용이다.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傷寒에 대해 저술한 것을 보면 傷寒에 대한 그의 깊은 研究를 짐작할 수 있다. 張錫純은 「治傷寒方」에서 “仲景은 醫學의 聖人이고 저술서인 『傷寒論』 또한 매우 넓고 심오하여 後人들에게 무한한 法門을 열어 주었으니 가볍게 擬議를 加해서는 안된다.”¹²⁾ 하였고 또한 “『傷寒

論』은 原本이 원래 흩어져 유실되었던 것을 王叔和가 편찬하여 완성시킨 과정을 거친 것으로 그 중에 잘못 전해진 것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는 『傷寒論』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本經』, 『內經』과 같이 존중하였고 간혹 감히 믿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의심스러운 문제로 남겨두었으니 고명한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였다¹³⁾. 이를 통해 張錫純은 『傷寒論』을 매우 중요시했으나 原文에 얽매이지 않고 本人의 獨創的인 觀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太陽病, 脈浮緊, 無汗, 發熱身疼痛, 八九日不解, 表證仍在, 此當發其汗, 服藥已微除, 其人發煩目暈, 劇者必衄, 衄乃解, 所以然者, 陽氣重故也, 麻黃湯主之.”의 조문에 대해서 張錫純이 “이전에 한 처녀가 溫病에 걸린 것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7~8일 동안 매우 심한 코피를 쏟았고 그 후에 몸에 더욱 熱이 났으며 게다가 怔忡이 나타났고 脈이 매우 虛數하였다. 白虎加人參湯에 生石膏를 3兩을 加해 큰 사발 1잔 분량으로 달여 세 차례 나누어 따뜻하게 마시게 하였더니 熱이 비로소 내렸다. 만나질 간격으로 다시 코피를 쏟아 환자의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였으나 診脈해보니 脈이 매우 和平하여 藥을 쓰지 않아도 나을 것이라 했는데 과연 곧 나았다. 이 證에서 만약 처음 코피가 난 후에 급히 白虎加人參湯을 사용하여 熱을 식혀주고 虛한 것을 補하지 않았다면 몸에 熱이 나고 脈은 數하며 심에는 다시 怔忡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니 재차 코피를 쏟는 것을 어찌 감당하겠는가.”¹⁴⁾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것들은 仲景의 原文이 아니라고 의심되며 仲景의 原文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고대에 가깝고 性品이 순진하여 비록 外感으

1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2. : “或問曰, 子解二陽之病發于心脾一節, 與王氏內經之注不同, 豈王氏注解謬歟. 答曰, 愚實不敢云然. 然由拙解以釋經文, 自覺經文別有意味, 且有實用也. 夫二陽之病發心脾, 與下三陽爲病發寒熱, 一陽發病少氣, 善咳, 善泄, 句法不同, 卽講法可以變通. 蓋二陽病發心脾, 謂其病自心脾而來也. 三陽爲病發寒熱, 是形容三陽之病狀也, 故將之病之字易作爲字. 至一陽發病數句, 其句法又與三陽爲病句不同, 而其理則同也.”

1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34. : “仲景爲醫中之聖, 所著傷寒論一書, 弘博淵深, 開後人無限法門, 原不可輕加擬意.”

1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35. : “傷寒論前原散佚, 經王叔和編次而成, 其中能保無舛訛乎. 是以愚於傷寒論一書, 其可信者, 尊之如本經內經, 間有不敢信者, 不得不存爲疑案, 以待質高明也.”

1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35. : “曾治一室女得溫病, 七八日間衄血甚多, 衄後身益熱, 且怔忡, 脈甚虛數. 投以大劑白虎加人參湯, 生石膏重用三兩, 煎湯一大碗, 分三次溫飲下, 熱遂退. 隔半日復衄血, 病家懼心, 診其脈甚平和, 曰無須用藥即愈矣, 果須與而愈. 此證藥於初次衄後, 不急用白虎加人參湯, 清熱兼補氣虛, 其身熱脈數, 心腹怔忡之狀況, 猶堪再衄乎.”

로 손상되더라도 陰分은 쉽게 虧損되지 않았고 우연히 損傷된 바가 있더라도 그 뿌리는 다시 단단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치료할 경우에는 모두 外感만을 치료하고 芒硝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¹⁵⁾라고 한 언급은 傷寒論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그는 傷寒論 原文에 따르면 코피가 나게 되면 病이 풀리게 될 것이나 실제로는 더욱 심해진 예를 들면서 해당 條文이 張仲景의 原文이 아니거나 혹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張錫純은 疾病을 치료함에 있어 傷寒論의 내용은 적극 수용하였지만 原文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獨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3) 『神農本草經』을 계승

『醫學衷中參西錄』의 「治陰虛勞熱方」에는 “『神農本草經』을 상세히 보면 山茱萸가 원래 寒熱을 主治한다고 했는데 그 主治하는 寒熱은 肝經의 虛가 極甚하여 寒熱往來하는 것이다. 특히 이전의 것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本經』의 정밀함에 감탄하게 되니 진실로 後世의 本草書가 미칠 바가 아니다. 또한 『本經』에서 山茱萸는 寒濕痺를 내물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전의 처방에서 心腹疼痛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이유이다.”¹⁶⁾ 라는 언급이 있다. 이는 張錫純이 『神農本草經』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張錫純은 『醫學衷中參西錄』의 4期 1, 2, 3, 4卷을 88種의 本草를 解說하는데 할애하였는데, 각 본초의 성질을 『神農本草經』의 내용을 따랐다.

예를 들어 張錫純이 石膏에 대해 논한 것을 살펴보

면 “『神農本草經』에서 성질이 微寒하다고 했으니 즉 그 성질이 大寒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產母와 乳兒에게도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그 성질이 매우 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醫師들이 많이들 잘못論하고 있는 것이 성질이 大寒하여 假法을 써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즉 宣散하는 성질이 收斂하는 것으로 바뀌어 外感證에 實熱이 있는 경우를 치료할 때 뜻한 바와 다르게 痰火를 收斂하여 머물게 하여 凝結시키고 흠어 내지를 못하니 1兩 가까이 사용하게 되면 죽히 사람을 傷하게 하니 이는 金丹이 鳩毒으로 바뀐 것과 같다.”¹⁷⁾라고 하여 『神農本草經』에 근거하여 石膏의 성질이 未寒하며 순한 약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人蔘에 대해서도 “『神農本草經』에 記載된 것을 살펴보면 맛이 쓰다는 말은 없는데 지금의 黨參의 맛이 달고, 人蔘은 달면서 약간 쓴맛이 나므로 옛날에 가리킨 人蔘이 지금의 黨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⁸⁾라고 하여 『神農本草經』의 氣味에 따라 옛 方書에서 가리키는 人蔘이 黨參임을 주장하였다.

玄參에 대해 그는 “『本經』에서는 또한 玄參이 눈을 밝게 한다고 하였는데, 肝은 눈으로 開竅하고, 玄參은 能히 水를 더하여 肝木을 滋養하니 故로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눈동자의 神水가 充足되어야 하는 것인데, 神水는 腎의 精華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玄參과 柏實, 枸杞子를 함께 써서 肝과 腎이 虛하여 熱이 나는 것을 치료하면 물체를 보는 것이 명료하지 않은 것에 항상 빠른 효과가 있게 된다.”¹⁹⁾라고 하여 水生木의 원리에 따라 明目의 효능을 보일 수 있다고 하여 『神農本

1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35. : “諸如此類, 竊疑非仲景原文, 卽系仲景原文, 而當時人猶近古, 稟質渾穆, 雖經外感鏽耗, 其陰分不易虧損, 卽偶有所損, 而其根底仍固. 故治之者, 率可但治其外感, 不必多有所顧忌.”

1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4. : “及詳觀神農本草山茱萸原主寒熱, 其所主之寒熱, 卽肝經虛極之寒熱往來也. 特從前涉獵觀之, 忽不可察, 且益嘆本經之精當, 實非後世本草所能及也. 又本經爲山茱萸能逐寒濕痺, 是以前方可用之治心腹疼痛.”

1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48. : “神農本草謂其微寒, 則性非大寒可知, 且謂其宜于產乳, 其性尤純良加知. 醫者多誤論爲大寒而假用之, 則宣散之性變爲收斂, 以治外感有實熱者, 竟將其痰火斂住, 凝結不散, 用之一兩卽足傷人, 是變金丹爲鳩毒也.”

1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58. : “考本經載, 人蔘味甘, 未嘗言苦, 今黨參味甘, 遼人蔘則甘而味苦, 古之人蔘其爲今之黨參無疑也.”

1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85. : “本經又謂, 玄參能明目, 誠以肝開竅于目, 玄參能益水以滋肝木, 故能明目, 且目之所以能視者, 在瞳子中神水充足, 神水固腎之精華外現者也. 以玄參與柏實, 枸杞并用, 以治肝腎虛而生熱, 視物不了了者, 恒有捷效也.”

草經』의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였고, 柴胡에 대해서는 “『本經』에서는 柴胡가 寒熱을 主한다고 했고, 山茱萸도 역시 寒熱을 主한다고 했다. 柴胡가 寒熱을 主하는 바는 少陽外感의 邪氣에 의해 傷寒瘧疾이 발생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 따라서 마땅히 柴胡로 和解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山茱萸가 寒熱을 主하는 바는 厥陰內傷의 寒熱로 肝臟이 虛하여 잠깐 瘧고 잠깐 열이 나면서 汗이 나고 虛脫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 따라서 마땅히 山茱萸를 사용해서 補하면서 收斂해야 하는 것이다. 두 증상의 寒熱이 비록 같지만 병의 원인이 하늘땅의 차이와 같으니 臨證者는 마땅히 세심히 살펴 用藥을 함에 신중하여 잘못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²⁰⁾라고 하여 柴胡와 山茱萸를 사용하는 증상을 鑑別, 補充하였다.

上述한 예를 통해 張錫純은 『神農本草經』을 깊이 研究하여 『神農本草經』의 뜻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였고 또한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 醫學思想의 특징

1) 衷中參西

張錫純의 醫學思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衷中參西이다. 「論中醫之理多包括西醫之理溝通中西原非難事」에서 그는 30대에 서양의서를 처음 보기 시작하여 10여 년간 研究를 한 결과 서로 다르게 보이던 西洋醫學의 이론이 실은 韓醫學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²¹⁾. 또한 「氣病門」에서 “內經과 西洋人들의 설명의 원래 상반된 것이 아니므로 醫學을 진보시키려고 한다면 韓醫學

과 西洋醫學을 합쳐서 科學으로 哲學의 시작을 열고 哲學으로 科學의 연구를 도와 變化를 적절히 시켜서 하나로 運用한다면 자연히 醫學의 가장 훌륭한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²²⁾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張錫純은 西洋醫學을 참고하여 韓醫學의 理論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醫學의 영역을 넓히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張錫純의 醫學理論이 牽強附會한 면도 많이 보이고, 現代醫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張錫純이 당시 西洋醫學을 韓醫學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腦出血에 대해 「論腦充血之原因及治法」에서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腦充血이라는 말은 西洋人들이 만든 것인데, 識見이 얕은 자는 항상 中醫에서는 이 병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內經』을 보지 못한 자일 것이다. 『內經』의 調經論을 보면 ‘血之與氣, 并走于上, 則爲大厥, 厥者暴死, 氣反則生, 不反則死’ 라로 언급된 것이 西洋人이 말하는 腦充血의 증상이 아니겠는가? 다른 점은 西洋人은 充血이라는 말을 했고, 內經에서는 血이 氣와 함께 위로 올라간다고 언급한 것이다. 대개 血은 반드시 氣를 따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정해진 이치인데, 西洋人이 병을 논함에 모두 해부의 지식을 얻어서 뇌에 충혈이 된 것을 보기만 하고 병의 원인을 탐구하지 못해 이치를 보충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腦充血이라고만 이름 지은 것이다. 『內經』에서 ‘氣反則生, 不反則死’고 한 것은 이 증상이 다행히도 호전의 기미가 있어, 氣가 上行한 것이 極에 달하여 반대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뇌중에 차 있던 血液이 이에 應하여 내려오게 되어 故로 그 사람은 살 수 있고, 만약 氣가 上行하여 내려오지 않으면 血도 역시 따라 腦에 차고, 또 차게 되니 腦中の 혈관이 파열이 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²³⁾라고 하였는데, 腦出血에 대한 그의 해

2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91. : “本經柴胡主寒熱, 山茱萸亦主寒熱. 柴胡所主之寒熱, 爲少陽外感之邪, 若傷寒瘧疾是也, 故宜用柴胡和解之, 山茱萸所主之寒熱, 爲厥陰內傷之寒熱, 若肝臟虛極忽寒忽熱, 汗出欲脫是也, 故宜用山茱萸肉補斂之. 二證之寒熱雖同, 而其病因判若天淵, 臨證者當細審之, 用藥慎勿誤投也.”

2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43. : “年過三旬始見西人醫書, 頗喜其講解新異多出中醫之外. 後于十餘年, 于醫學研究功甚, 乃知西醫新異之理原多在中醫包括之中, 特古籍語意渾合, 有賴後人闡發耳.”

2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572. : “內經與西說原不相背, 是以當今欲求醫學進步, 當匯通中西以科學開哲學之始, 即以哲學濟科學之窮, 通變化裁, 運乎一心, 自於醫學能登峰造極也.”

2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92. : “腦充血病之說倡自西人, 而淺見者流恒譏

석은 지금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張錫純은 大氣論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도 “西洋人들은 形而下를 중시하여 모든 실체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中醫에서는 形而上을 중시하여 항상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추구한다. 『內經』에서 ‘上氣가 不足하면 腦는 가득 차지 않고 귀에서는 소리가 들리며 머리는 기울어지며 눈은 어지럽게 된다.’라고 하였다. 무릇 上氣라는 것은 胸中의 大氣인데, 『內經』을 자세히 살펴보면 腦도 원래는 大氣가 순환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고 延髓와 腦는 서로 이어져 있으니 大氣의 순환이 유독 延髓에만 가지 않겠는가? 이로부터 延髓가 呼吸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원동력은 실제 大氣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라고 하여 本人의 理論이 西洋醫學적인 측면에서도 입증됨을 보였다.

張錫純이 西洋醫學을 적극 받아들여 臨床에 활용하였지만, 西洋醫學을 바라보는 입장은 철저히 韓醫學의인 思考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論西藥不盡宜于中人」에서 “과거에 『內經·異法方宜論』을 읽었는데, 『內經·異法方宜論』에서는 ‘西方은 水土가 단단하여 백성들은 옷을 입지 않고 털옷과 거적을 덮고, 기름지게 먹어 기름지고 살져서 邪氣가 그 形體를 傷하지 못하고 病은 안에서 생기니 치료는 마땅히 毒藥으로 해야 하니 그러므로 毒藥은 西方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모든 구절에서 운운했던 것처럼 현재 西洋藥들이 실제 들어오게 되었다. 무릇 사

람이 추운 곳에서 살고 음식을 많이 하면 脾胃는 반드시 굳고 튼튼해진다. 따라서 西洋藥의 原質은 본래 맹렬한 것이 많고, 또 항상 黃酸, 硝酸, 鹽酸용액으로 法制하여 그 맹렬함을 더하니, 맹렬한 성질을 取한 것과 굳고 튼튼한 脾胃가 서로 잘 맞는 것이다. 中藥에서 찾아보면 大黃, 巴豆의 開破, 黃連, 龍膽의 寒涼과 같은 것들이 胃를 튼튼히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사용한 결과가 脾胃를 강건히 하는 것이겠는가? 20여 년 동안 나도 西洋藥을 함께 써보니 原質에 독성을 함유하지 않고 성질이 和平한 것에 가까워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²⁵⁾라고 한 언급을 살펴보면 西洋과 中國의 風土가 다르므로 마땅히 藥을 쓰는 것도 달라야 하며 洋藥을 사용하는 데에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하여 西洋醫學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傷寒 溫病의 統合

張錫純은 傷寒의 입장에서 溫病을 統合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傷寒論』의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의 조문을 張仲景이 論한 溫病의 提綱이라고 지적하면서²⁶⁾ 『傷寒論』에 이미 溫病의 提綱이 詳細하게 있지만 溫病에 대한 處方이 詳細하게 나와 있지 않아 후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傷寒論』을 反復하여 詳細하게 살펴보면 『傷寒論』에 溫病에 대한 處方이 원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²⁷⁾.

中醫不知此病, 其人蓋生平未見內經者也. 嘗讀內經至調經論, 有謂血之與氣, 并走于上, 則爲大厥, 厥者暴死, 氣反則生, 不反則死云云, 非即西人所謂腦充血之證乎. 所有異者, 西人但言充血, 內經則謂血之與氣屏走于上. 蓋血必隨氣上昇, 此爲一定之理, 而西人論病皆得之解剖之餘, 是以但見血充腦中, 而不知輔以理想以深究病源, 故但名爲腦充血也. 至內經所謂氣反則生, 不反則死者, 蓋謂此證幸有轉機, 其氣上行之極, 復反而下行, 腦中所充之血應亦隨之下行, 故其人可生, 若其氣上行不反, 升而愈升, 血亦隨之充血愈充, 腦中血管可至破裂, 所以其人死也.”

2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572. : “西人注重形下, 是以凡事皆求諸實見, 中醫注重形上, 恒由所見而推及於所不見. 內經謂上氣不足, 腦爲之不滿, 耳爲之苦鳴, 頭爲之傾, 目爲之眩. 夫上氣者即胸中大氣也, 細審內經之文, 腦部原在大氣斡旋之中, 而延髓與腦相連, 獨不在大氣斡旋之中乎. 由斯知延髓之能司呼吸, 其原動力故在大氣也.”

2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89. : “嘗讀內經之異法方宜論謂, ‘西方水土剛強, 其民不衣而褐薦, 華食而脂肥, 故邪不能傷其形體, 其病生于內, 其治宜毒藥, 故毒藥者亦從西方來’, 諸句云云, 顯爲今日西藥道着實際. 蓋凡人生寒冷之地且多肉食, 其脾胃必多堅壯. 是以西藥之原質本多猛烈, 而又恒制以硫酸, 硝酸, 鹽酸諸水以助其猛烈, 是取其猛烈之性與堅壯之脾胃相宜故也. 其取用中藥之處, 若大黃, 巴豆之開破, 黃連, 龍膽之寒涼, 彼皆是謂健胃之品, 吾人用之果能強健脾胃乎. 廿餘年來, 愚亦兼用西藥, 然必細審其原質本非含有毒性, 且其性近和平.”

2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3.

2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450. : “此仲景論溫病之提綱也. 乃提綱詳矣, 而其後未明言治溫病之方, 後世以爲憾事. 及反復詳細觀之, 乃知

그는 「治溫病方」에서 “나는 『內經』과 仲景을 근본으로 하고 사이에 좁은 소견을 덧붙이니 溫病大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²⁸⁾라고 하며 溫病을 春溫과 風溫, 濕溫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溫病을 독립된 질병의 범주로 생각한 것 보다는 傷寒의 범주 안에서 溫病을 해석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溫病을 外感 發病의 내재적 요소로 인식하여 辛涼解表, 清熱, 滋陰 등의 治法을 제시했는데²⁹⁾, 「溫病之治法詳于傷寒論解」에서 “溫病의 傳經이 이미 深해졌을 경우 清燥熱하는 白虎湯, 白虎加人蔘湯, 通腸結하는 大承氣湯, 小承氣湯, 開結胸하는 大陷胸湯, 小陷胸湯, 下痢를 치료하는 白頭翁湯, 黃芩湯, 黃疸를 치료하는 茵陳蒿湯, 梔子檨皮湯 등의 涼潤清火有陰安神하는 處方을 모두 溫病에 사용할 수 있다.”³⁰⁾라고 한 언급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3) 大氣論과 腦充血論 - 氣의 升降에 따른 病理

張錫純 醫學의 또 다른 특징은 氣의 升降의 문제를 주의 깊게 다뤘다는 점인데, 이는 그가 主張한 大氣의 下陷과 腦充血을 살펴보면 이런 면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大氣는 胸中에 쌓여 呼吸을 주관하고 精神을 振作하며 心思와 腦力을 증진시키고 五官과 百骸의 動作을 추진하는 氣로서 後天諸氣의 綱領이 되고 全身血脈의 綱領이 되는데, 『內經』에서 말하는 宗氣가 이에 해당한다. 大氣는 先天의 元氣를 근본으로 하여 水穀之氣를 養料로 삼고, 자연계 清氣의 滋養을 받아 형성된다³¹⁾. 張錫純은 「治大氣下陷方」에서 “大氣는

胸中에 가득 차서 肺가 呼吸을 하게 하는 기운이다. ... 이렇듯 大氣는 원래 元氣를 근본으로 하고 水穀의 氣로 배양되어 胸中을 거처로 삼는다. 모두 같은 氣이지만 胸中의 氣만을 大氣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 몸을 지탱하면서 모든 氣의 綱領이 되고 肺外를 둘러싸고 받쳐서 呼吸을 주관하는 중추가 되기 때문에 중히 여겨 大氣라고 한 것이다.”³²⁾라고 하여 大氣의 중요성을 力說했다. 大氣의 機能失調는 주로 虛로 인한 大氣下陷인데³³⁾, “이 氣는 全身을 지탱하고 精神을 진작시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이 氣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氣가 일단 虛하게 되면 呼吸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肢體가 시리면서 나른해지며 精神이 흐려지고 사고력이 둔감해지게 된다. 만약 이 氣가 虛한데다가 下陷하게 되거나 甚하게 下陷하면 呼吸이 갑자기 멈추고 精神을 잃게 된다.”³⁴⁾라고 한 언급과 “이 證은 대부분 힘에 부치는 일을 했거나, 공복에 일을 했거나, 병후에 기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힘을 썼거나, 설사가 오래 되었거나, 破氣藥을 너무 많이 복용했거나, 氣分의 虛가 심하여 下陷해서 걸리게 되는데 이처럼 病因은 같지 않지만 그 脈象은 모두 微細하면서 遲弱하고 胸中에 短氣가 있다.”³⁵⁾라는 언급을 살펴보면, 大氣의 下陷은 다양한 原因으로 인해 발생하는 進心증상임을 알 수 있다. 장석순은 이러한 大氣下陷

傷寒論中原有治溫病之方.”

2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3. : “愚本內經仲景, 間附以管見, 知溫病大綱, 當分爲三端.”

29) 張祐彰. 張錫純의 『傷寒論講義』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卷 2號. p.361.

3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449. : “至溫病傳經已深, 若清燥熱之白虎湯白虎加人蔘湯, 通腸結之大小承氣湯, 開結胸之大小陷胸湯, 治下痢之白頭翁湯, 黃芩湯, 治發黃之茵陳梔子檨皮湯等, 及一切涼潤清火有陰安神之劑, 皆可用于溫病者.”

31) 金亨泰, 尹暢烈. 張錫純의 大氣論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1. 14卷 2號. p.14.

3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05. : “大氣者, 充滿胸中, 以司肺呼吸之氣也. ... 是大氣者, 原以元氣爲根本, 以水谷之氣爲養料, 以胸中之地爲宅窟者也. 夫均是氣也, 至胸中之氣, 獨名爲大氣者, 誠以其能撐持全身, 爲諸氣之綱領, 包舉肺外, 司呼吸之樞機, 故鄭而重之曰大氣.”

33) 金亨泰, 尹暢烈. 張錫純의 大氣論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1. 14卷 2號. p.14.

3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06. : “而此氣, 且能撐持全身, 振作精神, 以及心思腦力, 官骸動作, 莫不賴乎此氣. 此氣一虛, 呼吸即覺不利, 而且肢體酸懶, 精神昏憤, 腦力心思, 爲之頓減. 若其氣虛而且陷, 或下陷過甚者, 其人即呼吸頓停, 昏然妄覺.”

3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06. : “其證多得之力小任重或枵腹力作, 或病后氣力未復, 勤于動作, 或因泄瀉日久, 或服破氣藥太過, 或氣分虛極自下陷, 種種病因不同. 而其脈象之微細遲弱, 與胸中之短氣.”

을 補氣와 升氣의 治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升陷湯³⁶⁾이 대표적인 處方이다.

張錫純은 또한 中風의 原因을 氣의 逆上으로 보았는데 血이 氣를 따라 逆上하여 腦에 充血을 일으켜 神經에 이상을 초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治內外中風方」에서 “類中風證이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쓰러져 人事不省하게 되니 이른바 ‘尸厥證’이라 한다. … 사람의 몸에는 陰陽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陽의 성질은 위로 뜨나 陰氣가 아래에서 당기고 있고, 陰의 성질은 下降하나 陽氣가 위에서 끌어올리므로 陰陽은 서로 뿌리가 되어 서로를 품고 업혀서 돌고 있으니 壽命이 백 년이 되어도 병이 없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保陽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下焦의 陰分이 虧損되고 上焦의 陽分과 연계될 수 없으면 陽氣가 虛脫하여 위로 달아나게 되고 아울러 겸하여 腎水가 肝木을 적셔 줄 수 없게 되면 肝風이 煽動하고 痰涎이 위를 막아서 갑자기 쓰러져서 시체와 같이 강직된다.”³⁷⁾라고 하여 中風의 原因이 氣가 上逆하여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內經·調經論』에서 ‘血이 氣와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을 大厥이라고 하는데, 厥하게 되면 갑자기 죽게 된다. 氣가 되돌아오면 살고 氣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였다. 血은 스스로 오르지 못하므로 반드시 氣를 따라 상승하는데 상승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腦充血이 된다. 이른바 ‘氣反則生, 氣不反則死’라고 한 것은 대개 氣가 도리어 下行하면 血도 이를 따라 下行하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氣가 上行하여 되돌아오지 않으면 血은 반드시 이를 따라 上衝한데다가 더욱 上衝하여 끊임없이 혈관이 파열되니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 經文의 구절을 읽고 內中風의 이치를 분명히 알게 되면 腦充血의 이치 역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³⁸⁾라고 한 언급을 살펴보면 그의 腦充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는 中風의 治法을 血을 下行시키기 위해 肝木을 억제하고 氣를 아래로 내리고자 하였는데, 鎮肝熄風湯³⁹⁾이 대표적인 處方이다.

3. 藥物運用的 특징

張錫純 醫學의 가장 큰 특징인 衷中參西는 西洋醫學의 生理와 病理理論을 참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藥物運用上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張錫純은 『醫學衷中參西錄』 4期 5卷에 西洋藥 45種의 效能에 대해 언급을 해 後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본인도 韓藥과 洋藥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거나 洋藥의 성질을 氣味論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며, 本草를 化學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등 여러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

1) 韓藥과 洋藥의 併用

張錫純은 臨床에서 藥을 쓰는 과정에서 자주 韓藥과 洋藥을 함께 처방하였다. 「論中西之藥原宜相助爲理」에서 그는 “西洋 醫師는 局部에 藥을 사용하는데 이는 病의 標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中國 醫師는 原因을 求하여 藥을 사용하니 이는 病의 本에 무게가 있는 것이다. 病의 標本을 살피는 것은 마땅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難治證을 볼 때 西洋藥으로 標를 치료하고, 中藥으로 本을 치료한다면 그 효과가 반드시 빠르게 나타날 것이니 臨床에서 확실히 妙藥을 해야 한다.”⁴⁰⁾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張

3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05. : 生黃芪 6錢, 知母 3錢, 柴胡 1.5錢, 桔梗 1.5錢, 升麻 1錢.

3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88. : “類中風之證, 其劇者忽然昏倒, 不省人事, 所謂尸厥之證也. … 蓋人之一身, 陰陽原相維系, 陽性上浮而陰氣自下吸之, 陰性下降而陽氣自上提之, 陰陽互根, 渾淪環抱, 壽命可百年無恙也. 有時保陽失宜, 下焦陰分虧損, 不能維系上焦陽分, 則陽氣脫而上奮, 又兼腎水不能濡潤肝木, 則肝風煽動, 痰涎上壅, 而猝然昏倒, 強直如尸矣.”

3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91. : “內經調經論曰, 血之與氣, 并走于上, 此爲大厥, 厥則暴死. 氣反則生, 氣不反則死. 蓋血不自升, 必隨氣而上升, 上升之極, 必至腦中充血. 至所謂氣反則生, 氣不反則死者, 蓋氣反而下行, 血即隨之下行, 故其人可生. 若其氣上行不反, 血必隨之充而益充, 不至血管破裂不止, 猶能望其復蘇乎. 讀此節經文, 內中風之理明, 腦充血之理亦明矣.”

3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90. : “治內中風證(亦名類中風, 卽西人所謂腦充血證), 其脈弦長有力(卽西醫所謂血壓過高), 懷牛膝 1兩, 生赭石 1兩, 生龍骨 5錢, 生牡蠣 5錢, 生龜板 5錢, 生杭芍 5錢, 玄參 5錢, 天冬 5錢, 川楝子 2錢, 生麥芽 2錢, 茵陳 2錢, 甘草 0.5錢.”

4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錫純은 韓藥과 洋藥 각각의 長短點을 고려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임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장석순은 “西洋藥 아스피린은 肺結核을 치료하는 좋은藥이지만 發散이 過多하여 항상 肺陰을 상하니, 만약 玄參, 沙參 등의 藥을 같이 써서 肺陰을 滋養하면 結核이 쉽게 낫게 된다. 또 이 약은 溫病 初期를 잘 치료하나 表를 풀어내는 효과가 너무 강하고 裏를 차게 하는 것이 부족하여, 항상 복용을 하게 되면 온몸에서 땀이 나지만 裏熱은 떨어지지 않아 病이 낫지 않으니, 만약 땀이 나는 때에 급히 石膏 1兩을 끓여 따뜻하게 마시게 되면 땀은 더욱 많이 나고 熱도 역시 따라 내리게 된다. 혹은 石膏를 끓인 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땀이 난 후에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⁴¹⁾라고 하여 아스피린을 사용할 때 玄參이나 沙參, 石膏 등을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는 「治溫病方」에 石膏阿斯必林湯⁴²⁾을 수록하면서 “온몸에 심하게 熱이 나고 心中에 發熱이 나면서 갈증이 있고 舌苔가 흰색에서 황색으로 되려 하며 脈이 洪滑한 것을 치료한다.”⁴³⁾라고 소개하였고, 「附溫病遺方」에서도 “病이 발생하기 전 心中에 항상 熱이 있는 상태에서 外感이 일어나게 되면 熱이 매우甚하게 되고, 五心이 煩躁하고 머리와 눈이 어지러우면서, 혀에는 희고 두꺼운 舌苔가 끼고 熱바늘이 돋고 입안이 맵고, 脈은 浮數하면서 힘이 있게 되는데, 이는 잠복된 氣가

熱로 化하여 이미 心包에 들어간 상태에서 外感이 表를 구속하여 內蘊의 熱이 더욱 심해진 것이니 이 때문에 혀에 熱바늘이 돋고 매운 감각을 느낀 것이다. 마땅히 涼潤清散하는 藥을 사용해 속을 차게 하고 길을 풀어 땀을 내면 즉 낫게 된다.”⁴⁴⁾라고 하면서 生地黃, 玄參 등의 藥材와 아스피린을 함께 配伍한 處方⁴⁵⁾을 소개하였다.

또한 張錫純은 洋藥을 포함한 處方을 소개 하는 것 외에 醫案을 덧붙여 그의 處方이 臨床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治肺病方」에 기재된 醫案을 살펴보면 “奉天驛에서 식당을 하는 趙煥章은 나이가 40세였는데, 心中에 發熱이 있고 말하기를 싫어했으며 기침을 하고 비린내가 나는 痰을 토하고 여위고 약하여 일어날 수가 없었다. 발병 시기를 물었더니 3개월이 지났다고 했다. 맥박 수는 분당 85회였고 左脈은 거의 和平하였으나 右脈은 滑實하였다. 혀는 黃苔가 가득 끼어 있었고 大便은 4~5일에 한번 보는데 매우 건조하였다. 外感이 肺胃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 肺臟에 염증이 생겼고 오래되어 腐爛될 것임을 알았다. 西洋人들이 結核證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내가 흔쾌히 치료하겠다고 하였으니 淸金解毒湯에서 黃芪를 빼고 生山藥 6錢, 生石膏 1兩을 가하여 3劑를 투여한 다음에 熱이 크게 내리고 식사량이 증가하고 기침과 痰을 토하는 것도 모두 나은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山藥을 빼고 黃芪 3錢을 가하고 또 石膏를 빼면서 天花粉 6錢으로 바꾸면서 매일 아스피린 0.25瓦를 함께 복용시키자 10여 일 후에 병이 크게 나은 듯 하였고 신체가 건강해졌다.”⁴⁶⁾라고 하면서

2006. p.388. : “蓋西醫用藥在局部, 是重在病之標也. 中醫用藥求原因, 是重在病之本也. 究之標本原宜兼顧, 若遇難治之證, 以西藥治其標, 以中藥治其本, 則奏效必捷, 而臨證亦確有把握矣.”

4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88. : “西藥阿斯必林, 爲治肺結核之良藥, 而發散太過, 恒傷肺陰, 若兼用玄參, 沙參諸藥以滋肺陰, 則結核易愈. 又其藥善解溫病初得, 然解表甚效, 而淸裏不足, 恒有服之周身得汗, 因其裏熱未淸, 而病不愈者, 若于其正出汗時, 急用生石膏兩許煎湯, 乘熱飲之, 則汗出愈多, 而熱亦遂淸, 或用石膏所煎之湯送服阿斯必林, 汗出後亦無不愈者.”
4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7. : 生石膏 2錢, 阿斯必林 1瓦
4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5. : “治周身壯熱, 心中熱而且渴, 舌上苔白欲黃, 其脈洪滑.”

4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764. : “有未病之先, 心中常常發熱, 後爲外感觸發, 則其熱益甚, 五心煩躁, 頭目昏沈, 其舌苔白厚, 且生芒刺, 其口中似有辣味, 其脈浮數有力者, 此伏氣化熱已入心包, 而又爲外感束其外表, 則內蘊之熱益甚, 是以舌有芒刺且覺發辣也. 宜用涼潤淸散之劑, 內淸外解, 遍體得透汗得愈矣.”
4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764. : 鮮地黃 1兩, 玄參 1兩, 天花粉 1兩, 知母 5錢, 寸麥冬帶心 5錢, 西藥阿斯必林 兩瓦
4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49. : “奉天車站開飯店者趙煥章, 年四十許. 心中發熱懶食咳嗽吐痰腥臭, 羸弱不能起床, 詢其得病之期, 至今已遷延三月矣. 其脈一分八十五至, 左脈近平和, 右脈滑而

肺病에 韓藥과 아스피린을 함께 처방하여 좋은 효과를 보인 사례를 보았다.

2) 本草의 化學的 해석

張錫純은 本草의 효능을 설명하는데 『神農本草經』의 氣味論을 따르고 西洋의 化學的 知識을 活用한 설명을 덧붙여 설명하면서 기존 韓醫學의 氣味論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山藥

山藥의 성질은 ... 蛋白質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滋補藥 가운데 최상품이 된다. 특히 성질이 매우 和平하여 대량으로 복용하거나 평상시 복용해도 무방하다⁴⁷⁾.

西洋人들은 음식물 중에서 蛋白質이 가장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 山藥의 汁은 맑고 투명하면서 점조하며 매끄러운 純蛋白質이므로 그것을 복용하면 크게 補益이 된다⁴⁸⁾.

山藥은 ... 마땅히 생것을 끊어 즙을 마셔야 하며 볶아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蛋白質을 매우 많이 함유하여 볶게 되면 蛋白質이 타버려 먹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⁴⁹⁾.

(2) 赭石

赭石은 원래 材質은 鐵과 산소가 7:3으로 化合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材質이 원래 쇠에 슌 녹과 비슷하다. (철과 산소가 化合하면 녹이 생긴다). 쇠에

實, 舌有黃苔滿布. 大便四五日一行且甚燥. 知其外感, 稽留於肺胃, 久而不去, 以致肺臟生炎, 久而欲腐爛也. 西人爲肺結核證至此已不可治. 而愚慨然許爲治愈, 投以清金解毒湯去黃芪, 加生山藥六錢, 生石膏一兩, 三劑後熱大清減, 食量加增, 咳嗽吐痰皆見愈, 遂去山藥, 仍加黃芪三錢, 又去石膏, 以花粉六錢代之, 每日兼服阿斯必林四分瓦之一, 如此十餘日後, 病大見愈, 身體康健.”

4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9. : “山藥之性, ... 且其含蛋白質最多, 在滋補藥中誠爲無上之品, 特性甚和平, 宜多服常服耳.”

4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9. : “西人謂食物中之蛋白質最能益人, 山藥之汁晶瑩透徹, 粘而且滑, 純是蛋白之質, 故人服之大有補益.”

4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77. : “山藥 ... 宜用生者煮汁飲之, 不可炒用, 以其含蛋白質甚多, 炒之則其蛋白質焦枯, 服之無效.”

스 녹은 補血을 잘 하고 赭石도 역시 補血을 잘한다⁵⁰⁾.

(3) 礬石

이 물질은 化學者들이 원래 黃酸水를 사용하여 鐵을 합성할 때 생성되는 것이니 광물 중에서 생산된 이러한 礬石이 鐵性分을 多量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金鐵의 餘氣를 빌려 肝膽의 木을 진정시킬 수 있다⁵¹⁾.

(4) 地黃

地黃은 鐵을 함유하고 있어 말리거나 찌게 되면 검게 변하는데 生血, 涼血하는 것은 역시 鐵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²⁾.

(5) 鐵鏞

化學者들은 쇠에 슌 녹을 酸化鐵이라 부르는데 鐵과 酸素가 化合하여 녹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肝膽을 잘 진정시키는 것은 쇠에 슌 녹이 金의 餘氣이므로 金이 木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上盛下虛의 證을 잘 치료하는 것은 그의 性質이 무겁기 때문에 上逆한 相火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相火는 陰속의 火로서 電氣와 같은 부류인 이것이 鐵이 電氣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이치인 것이다. 이것이 血分을 補養한다는 것은 사람의 血속에 원래 鐵分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쇠에 슌 녹의 냄새를 맡아보면 血의 비린내와 비슷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므로 이것이 바로 質으로써 質을 보하고, 氣로써 氣를 보하는 이치인 것이다. 또 人體의 血은 酸素를 얻으면 붉어지고, 쇠에 슌 녹은 원래 鐵과

5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7. : “赭石之原質, 系鐵七氧三化合而成, 其質原與鐵鏞相似(鐵與氧氣化合則生鏞). 鐵鏞善補血, 赭石亦善補血.”

5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72. : “此物化學家原可用硫酸水化鐵而成, 是知礦中所產之礬石, 亦必多含鐵質. 尤可借金鐵之餘氣, 以鎮肝膽之木也.”

5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79. : “其中含有鐵質, 故曬之蒸之則黑, 其生血涼血之力, 亦賴所含之鐵質也.”

酸素가 化合한 것이므로 血分을 補養할 수 있으므로 西洋人들의 血을 補하는 藥 중에 鐵分이 함유된 藥酒가 있는 것이다⁵³⁾.

이와 같이 化學的 해석을 덧붙인 藥物들은 주로 鑛物性 藥材에 집중이 되어있고, 또 지나치게 牽強附會한 면이 많아 대부분은 현재로서는 참고할만한 가치는 없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기존의 醫學의 영역을 넓히려는 그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3) 處方의 變通

앞서 언급했듯이 張錫純은 傷寒의 입장에서 溫病을 統合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는 溫病을 外感 發病의 내재적 요소로 인식하여 辛涼解表, 清熱, 滋陰 등의 治法을 제시했는데⁵⁴⁾ 이러한 治法을 제시하면서 그가 내놓은 治方은 바로 傷寒方을 加減한 것들이다. 그는 기존 傷寒方에 쓰이던 麻黃 등의 辛溫解表藥들을 薄荷 등의 辛涼解表藥들로 대체하거나, 石膏 등의 차가운 藥들을 重用하여 溫病에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傷寒方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입장에서 效果를 높일 수 있도록 한 處方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그의 『傷寒論』에 대한 깊은 研究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 桂枝湯의 運用

張錫純은 桂枝湯證에 원래 氣虛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⁵⁵⁾ 이 때문에 『傷寒論』에서 桂枝湯을 服用한 후에는 죽을 먹으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

하며 桂枝湯 原方을 사용하여 發汗을 시키더라도 죽을 먹지 않으면 效果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治傷寒方」에 加味桂枝代粥湯을 소개하였는데 黃芪와 防風을 加하여 補益之力을 강화하고 宣通營衛하는 效能을 더했으며 知母를 加해 黃芪와 防風의 따뜻한 성질을 완화하여 복용 후에 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였다⁵⁶⁾.

(2) 麻黃湯의 運用

장석순은 麻黃湯을 복용하였을 때 병이 풀리지 않는 경우를 麻黃湯을 복용한 後에 病이 陽明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滋陰退熱하는 知母를 加한 麻黃加知母湯을 제시하였다⁵⁷⁾. 「治傷寒方」에서 그는 麻黃加知母湯을 설명하면서 麻黃湯에 知母를 加한 이유를 “이 藥을 복용한 後에 간혹 땀이 났는데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땀을 내는 것이 칠저하지 못해서 가 아니라 실제로는 남은 熱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發表하는 가운데 知母로 보조하여 清熱의 뜻을 兼한 것이니 땀이 나고도 病이 풀리지 않을 염려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⁵⁸⁾라고 설명하였고, 이는 여러 번의 경험으로 얻어진 것으로 선불리 가감한 처방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3) 小青龍湯의 運用

「治傷寒方」에서 張錫純은 『金櫃要略』을 참고하여 小青龍湯에 石膏를 加하여 臨床에 活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나는 外感痰喘에 熱을 낀 경우를 治療할 때에는 『金櫃』의 例를 따라 반드시 生石膏 여러 錢을 적당히 加하였는데, 熱이 甚한 경우에는 1兩 까지도 사용해 보았다. … 나는 外感에 의한 痰喘을 치료하는데 小青龍湯을 사용하여 매번 모두 效果를 보았다. 그러나 반드시 生石膏를 7~8錢 또는 1兩 까지 加했으니 만약 石膏를 두려워하여 많이 사용하지

5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99. : “化學家名鐵鏽爲鐵氧, 以鐵與氧氣化合而成鏽也. 其善於鑛肝膽者, 以其爲金之餘氣, 借金以制木也. 其善治上盛下虛之證者, 因其性重墜, 緣引逆上之相火下行. 相火爲陰中之火, 與電氣爲同類, 此則鐵能引電之理也. 其能補養血分者, 因人血中原有鐵鏽, 且取鐵鏽嗅之, 又有血腥之氣, 此乃以質補質, 以氣補氣之理. 且人身之血, 得氧氣則赤, 鐵鏽原鐵與氧氣化合, 故能補養血分也. 西洋補血之藥, 所以有鐵酒.”

54) 張祐彰. 張錫純의 傷寒論講義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卷 2號. p.361.

55) 劉充閏. 張錫純運用經方之成就. 時珍國醫國藥. 1999. 10(11). p.8.

5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p.130-131.

57) 張祐彰. 張錫純의 傷寒論講義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 p.358.

5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28. : “誠以服此湯后, 間有汗出不解者, 非因汗出未透, 實因余熱未清也. 佐以知母于發表之中, 兼寓清熱之意, 自無汗后不解之虞.”

않는다면 효험이 없을 것이다.”⁵⁹⁾라고 하며 石膏를 加해야 하는 이유를 오랜 시간 동안 天地의 기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主張하였다.

(4) 大靑龍湯의 運用

大靑龍湯에 대해서도 張錫純은 麻黃을 薄荷로 바꾸어서 處方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論大靑龍湯中之麻黃當以薄荷代之」에서 “古代에는 藥의 종류가 적었고, 後世에는 藥의 종류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薄荷의 辛涼解肌의 效能은 外感病에 熱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藥인데 『神農本草經』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고, 『名醫別錄』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傷寒論』의 모든 처방에는 마땅히 薄荷를 써야 하는데도 張仲景이 쓰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에 薄荷를 桴라고 하여 간혹 매운 맛을 取하고자 할 때 음식에만 소량을 쓰고 藥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인근 마을의 武生 夏彭齡을 치료하였는데, 나이는 30여세였다. 겨울에 風寒에 感冒되어 全身에 惡寒이 나고 痰은 없으며 가슴에 煩躁가 심하게 나니 원래는 大靑龍湯證이지만 의사가 麻黃湯으로 잘못 투여하여 복용 후에 痰이 아주 조금만 나면서 煩躁는 더욱 심해져 거의 미친 것처럼 날뛰고 脈은 洪滑하면서 浮하였다. 이에 大靑龍湯에서 麻黃을 薄荷로 바꾸고 또 전에 잘못 복용한 麻黃湯 중에 원래 桂枝가 있었으므로 桂枝의 양을 줄여 투여하였다. 복용하자마자 痰이 목욕을 하는 것처럼 흐르면서 病이 나왔다.”⁶⁰⁾ 라고 하여 大靑龍湯의 麻黃을 薄荷로 바꿔서 處

方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主張하였다.

(5) 白虎湯의 運用

『醫學衷中參西錄』에 수록된 處方 중 白虎湯을 변통하여 만든 처방은 石膏粳米湯, 鎮逆白虎湯, 寒解湯, 仙露湯 등이다⁶¹⁾. 石膏粳米湯은 石膏와 粳米로 구성되어 있으며 溫病 초기에 脈이 浮하고 有力하며 몸에 熱이甚하거나 感冒 초기에 惡寒이 없고 心中에 發熱이 있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이고⁶²⁾, 鎮逆白虎湯은 石膏와 知母, 半夏, 竹茹로 구성되어 있어 傷寒, 溫病의 邪氣가 胃腑로 전해져 燥渴하고 身熱하는 白虎湯證이 있으면서 胃氣가 上逆하여 心下가 滿悶한 것을 치료한다⁶³⁾. 石膏, 知母, 連翹, 蟬退로 구성되어 있는 寒解湯은 온몸에 심하게 熱이 나고 心中에 發熱이 나면서 渴證이 있고 脈이 洪滑하며 머리가 아픈 듯 하고 全身이 拘束된 듯한 느낌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⁶⁴⁾. 또한 仙露湯은 石膏, 玄參, 連翹, 粳米로 구성되어 傷寒과 溫病의 陽明證에 表裏가 모두 熱이 있고 心中에 熱이 있으며 찬물을 좋아하나 燥渴에까지 이른 경우를 치료한다. 위와 같은 예는 張錫純은 處方을 運用함에 있어 原方 本來의 뜻을 잃지 않으면서도 原方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運用하였음을 보여준다.

(6) 白虎加人蔘湯의 運用

張錫純은 白虎加人蔘湯에 대해서 粳米를 山藥으로 바꿔야 處方의 구성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治傷寒溫病同用方」에서 白虎加人蔘以山藥代粳米湯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실제 오랫동안 경험해보니 生山藥으로 粳米를 대신하면 처방이 더욱 타당하고 효과도 더욱 빨라짐을 알게 되었다. 粳米는 胃氣를 조화시키는데 불과하지만 山藥은 下焦의 元氣를 固攝시키는 效能을 兼하고 있어 元氣

5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32. : “是以愚治外感痰喘之挾熱者, 尊金櫃之例, 必酌加生石膏數錢, 其熱甚者, 又或用之兩餘. … 愚用小靑龍湯治外感痰喘, 屢次皆效. 然必加生石膏, 或七八錢, 或至兩餘, 若畏石膏不敢多用, 即無效驗.”

6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437. : “古時藥品少, 後世藥品多. 如薄荷之辛涼解肌, 原爲治外感有熱者之要藥, 而神農本草經未載, 名醫別錄亦未載. 是以傷寒論諸方原有當用薄荷而仲師不用者, 因當時名薄荷爲苛, 間有取其苛辣之味, 少用之以調和食品, 猶未嘗用之入藥也. 曾治隣村武生夏彭齡, 年過三旬, 冬今感冒風寒, 周身惡寒無汗, 胸中則甚覺煩躁, 原是大靑龍湯證, 醫者誤投以麻黃湯, 服後汗無分毫而煩躁益甚, 几至癡狂, 其脈洪滑而浮. 投以大靑龍湯, 以薄荷葉代麻黃, 且因曾誤服麻黃湯方中原有桂枝, 并桂枝亦權爲減去. 煎服後, 覆杯之頃, 汗出如洗, 病若失.”

61) 郭海英, 曹進雷. 張錫純運用白虎湯方經驗淺析. 江蘇中醫. 1999. 20(7). p.6.

6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62.

6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63.

6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5.

가 虛한 경우에 石膏, 知母를 복용해도 泄瀉가 나지 않도록 한다. 또 山藥은 다량의 蛋白質汁을 함유하고 있어 滋陰시키는데 가장 좋으므로 白虎湯이 이것을 얻으면 實火와 虛熱을 없애니 內傷과 外感을 모두 낫게 한다.”⁶⁵⁾고 하여 白虎加人蔘湯에서 粳米를 山藥으로 바꿀 것을 강조하였다.

(7) 麻杏甘石湯의 運用

張錫純은 大青龍湯과 마찬가지로 麻杏甘石湯의 麻黃을 薄荷로 바꿔야 한다고 主張했다. 「薄荷解」에서 그는 “麻杏甘石湯 중의 麻黃은 마땅히 薄荷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麻杏甘石湯은 원래 喘이 나면서 喘證이 있고 大熱이 없는 것을 치료하며 大熱이 없다는 것을 云云한 것을 통해 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熱이 있을 때 麻黃을 사용한다는 것은 肺를 瀉하고 喘證을 安定시키는 성질을 取한 것이다. 하지만 麻黃이 능히 瀉肺定喘할 수 있는 것처럼 薄荷 역시 瀉肺定喘할 수 있는데 麻黃의 熱로써 熱을 치료하는 것이 어찌 薄荷의 찬 성질로 熱을 치료하는 것과 같겠는가.”⁶⁶⁾라고 하여 麻杏甘石湯의 主治證이 熱證이므로 麻黃의 辛熱한 성질 보다는 薄荷의 辛涼한 성질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張錫純은 麻杏甘石湯 중의 石膏의 용량을 10배로 늘려 溫病을 치료할 때 응용하기도 하였다⁶⁷⁾.

(8) 大柴胡湯의 運用

大柴胡湯에 대해서는 柴胡와 大黃이 主藥이 되고, 나머지는 主藥을 도와 效能을 이루는데 불과함을 지적하며 처방 중에 있는 枳實이 빠져야 함을 주장하였

는데, 「論傷寒論大柴胡湯原當有大黃無枳實」에서 大黃과 枳實을 함께 사용할 경우 開破之力이 너무 커져 柴胡가 邪氣를 푸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大黃만 사용할 경우 血分에만 들어가 降火를 하면서 氣分을 傷하지 않아 柴胡의 上昇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며⁶⁸⁾, 枳實이 빠진 通變大柴胡湯⁶⁹⁾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 用藥以勝病爲主

張錫純은 病勢를 이기기 위해서는 藥材의 用量에 연연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重用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또한 정확한 診斷을 통해 과감하게 處方을 運用했다. 用藥에 대한 張錫純의 견해는 「論用藥以勝病爲主不拘分量之多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일찍이 생각하건데, 藥을 써서 病을 제거하는데 藥을 복용하는 것은 病을 向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向하는 것이 아니다.(藥을 쓴 것이 病에 맞지 않을 경우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 害가 있다.) 따라서 藥을 쓴 것이 病을 없앨 수 있지만, 이따금 먹어도 효과가 없고 간혹 病이 급격히 변하여 더욱 심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藥이 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病이 藥을 모두 감당하고 餘力이 남아있으면 藥이 어찌 病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⁷⁰⁾라고 하여 病을 치료하는데 處方의 用量에 구애받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醫學衷中參西錄』에 수록된 그의 處方에는 君藥의 量이 1兩이 넘는 處方이 매우 많고, 醫案에서도 大劑를 사용한 기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대표적인 處方이라 할 수 있는 鎮肝熄風湯⁷¹⁾을 예를 들어보면 懷牛膝 1兩, 生赭石 1兩, 生龍

6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64. : “實驗既久, 知以生山藥代粳米, 則其方愈穩妥, 見效亦愈速. 蓋粳米不過調和胃氣, 而山藥兼能固攝下焦元氣, 使元氣素虛者, 不至因服石膏知母而作滑瀉. 且山藥多含有蛋白質之汁, 最善滋陰, 白虎湯得此, 既祛實火, 又清虛熱, 內傷外感, 須與同愈.”

6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10. : “如麻杏甘石湯中之麻黃, 宜用薄荷代之. 蓋麻杏甘石湯, 原治汗出而喘無大熱, 既云無大熱, 其仍有熱可知, 有熱而猶用麻黃者, 取其瀉肺定喘也. 然麻黃能瀉肺定喘, 薄荷亦能瀉肺定喘, 用麻黃以熱治熱, 何如用薄荷以涼治熱乎.”

67) 張錫純. 張錫純用經方之我見. 四川中醫. 2002. 20(10). p.7.

6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444.

6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2. : “治傷寒溫病, 表證未罷, 大便已實者. 柴胡 3錢, 薄荷 3錢, 知母 4錢, 大黃 4錢.”

7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85. : “嘗思用藥所以除病, 所服之藥病當之, 非人當之也(惟用藥不對病者則人當之而有害矣.). 乃有所用之藥本可除病, 而往往服之不效, 間有激動其病愈加重者, 此無他, 藥不勝病故也. 病足以當其藥而綽有餘力, 藥何以能除病乎.”

7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90. : “治內中風證(亦名類中風, 卽西人所謂腦充

骨 5錢, 生牡蠣 5錢, 生龜板 5錢, 生杭芍 5錢, 玄參 5錢, 天冬 5錢, 川楝子 2錢, 生麥芽 2錢, 茵陳 2錢, 甘草 0.5錢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처방에 대해 張錫純은 “처방 중에 牛膝을 重用함으로써 血을 끌고 下行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治標의 主藥이 되고, 病의 本源을 살펴 龍骨과 牡蠣, 龜板과 芍藥으로써 肝風을 그치게 하였다. 赭石으로 降胃, 降衝하고, 玄參, 天門冬으로 肺氣를 淸하는데, 肺中の 淸肅之氣가 下行하여 自然히 肝木을 進압하고 억제하게 된다.”⁷²⁾ 라고 하였다. 위의 언급을 살펴보면 그는 中風으로 인해 발생한 上盛下虛의 증상을 多量의 牛膝과, 赭石, 龍骨, 牡蠣 등을 이용해 下氣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藥을 복용하는 것은 病을 向하는 것이라는 張錫純의 主張을 잘 뒷받침하는 例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大劑를 運用할 경우 患者의 精氣가 극도로 弱할 경우, 이런 약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張錫純이 언급한 病이라는 것은 邪氣가 盛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精氣虛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治大氣下陷方」에 수록된 升陷湯⁷³⁾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升陷湯은 生黃芪 6錢, 知母 3錢, 柴胡 1.5錢, 桔梗 1.5錢, 升麻 1錢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補氣와 升氣의 效能을 가진 黃芪를 重用함으로써 大氣下陷을 治療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張錫純이 病을 向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의 藥物運用的 목표가 邪氣만을 의미하는

血證), 其脈弦長有力(即西醫所謂血壓過高), 或上盛下虛, 頭目時常眩暈, 或腦中時常作疼發熱, 或目脹耳鳴, 或心中煩熱, 或時常噎氣, 或肢體漸覺不利, 或口眼漸形歪斜, 或面色如醉, 甚或眩暈, 至于顛僕, 昏不知人, 移時始醒, 或醒后不能復原, 精神短少, 或肢體痿廢, 或成偏枯.”

7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90. : “方中重用牛膝以引血下行, 此爲治標之主藥. 而復深究病之本源, 用龍骨, 牡蠣, 龜板, 芍藥以鎮熄肝風, 赭石以降胃降沖, 玄參, 天冬以淸肺氣, 肺中淸肅之氣下行, 自能鎮制肝木.”

7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05. : “治胸中大氣下陷, 氣短不足以息. 或努力呼吸, 有似乎喘. 或氣息將停, 危在頃刻. 其兼證, 或寒熱往來, 或咽干作渴, 或滿悶怔忡, 或神昏健忘, 種種病狀, 誠難悉數. 其脈象沉遲微弱, 關前尤甚. 其劇者, 或六脈不全, 或參伍不調.”

것이 아니라 精氣虛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藥物 사용 범위의 확대

張錫純의 藥物運用的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藥材의 效能을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獨創의 藥物配伍를 통해 臨床效果를 높이고자 하였고, 代用藥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藥物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1) 鑛物性 藥材의 重用

張錫純은 鑛物性 藥材를 重用했는데, 특히 石膏와 赭石을 愛用했다. 『醫學衷中參西錄』 4欺에서 張錫純은 石膏와 赭石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두 藥材의 重用을 力說했다.

石膏에 대해서는 “石膏의 質은 매우 무거워, 7~8錢이 불과 한줌에 불과하다. 微寒한 藥 한줌으로 불타고 있는 別擘의 熱을 撲滅하려고 하면 어찌 큰 효과가 있겠는가. 따라서 나는 外感實熱에 生石膏를 사용할 때 가벼운 증에는 1兩까지 쓰며 만약 實熱이 熾盛한 경우에는 항상 4~5兩까지 사용하고 간혹 7~8兩까지 사용하며, 單味로 사용하든 다른 약과 함께 사용하든 반드시 煎湯하여 찻잔으로 3~4잔이 되도록 끓여 따뜻하게 4~5차례에 걸쳐 천천히 복용시키는데 藥을 다 먹기도 전에 熱이 떨어진다.”⁷⁴⁾라고 하여 石膏의 質量이 무거우므로 무게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히 사용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醫學衷中參西錄』에 나와 있는 處方을 예로 들면 「治溫病方」에 수록되어 있는 寒解湯⁷⁵⁾은 淸熱解毒, 發汗解表의 效能

7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48. : “夫石膏之質甚重, 七八錢不過一大撮耳. 以微寒之藥, 欲用一大撮撲滅寒熱燎原之熱, 又何能有大效. 是以愚用生石膏以治外感實熱, 輕證亦必至兩許, 若實熱熾盛, 又恒重用至四五兩, 或七八兩, 或單用, 或與他藥同用, 必煎湯三四茶杯, 分四五次徐徐溫飲下, 熱退不必盡劑.”

7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5. : “石膏 1兩, 知母 8錢, 連翹 1.5錢, 蟬退 1.5錢. 治周身壯熱, 心中熱而且渴, 舌上苔白欲黃, 其脈洪滑, 或頭猶覺疼, 周身猶有拘束之意者.”

을 가지고 있는데⁷⁶⁾ 醫案을 살펴보면 “40여세의 어떤 사람이 風寒에 傷하였는데 땀이 나지 않고 胸中에서 煩熱이 나면서 또 喘促하였다. 醫師가 蘇子降氣湯에 散風清火시키는 藥을 곁하여 치료하였으나 몇 劑를 복용하고서 病이 더욱 진행되었다. 診脈해보니 脈이 洪滑하면서 浮하기에 寒解湯을 투여했더니 곧바로 상반신에 땀이 났다. 잠시 후 藥力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더니 下焦와 다리에서도 역시 땀이 나면서 病이 사라지는 듯 했다.”⁷⁷⁾라고 하여 石膏를 重用한 寒解湯의 治驗例를 덧붙여 그의 주장의 설득력을 더했다.

赭石에 대해서는 “赭石은 참으로 쓰러진 사람을 구하고 위태로움을 붙잡아 주는 훌륭한 藥이다. 이처럼 좋은 藥을 지금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간혹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도 2~3錢에 지나지 않아 藥이 病을 이기지 못하니 사용한 것과 안한 것이 모두 똑 같다. 한편 내가 몇 兩까지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臨床한 지 오래되어 대부분의 藥의 性情, 效能 및 藥量의 輕重을 수십 년 연구해서 마음속에 일정한 견해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과감하게 사용해도 한 번의 실수가 없었다. 또 赭石이 上逆하는 기운을 鎮靜시킬 수 있고 형태가 있는 瘀滯를 내려 보낼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무거워서 가라앉히는 힘이 풍부하고 氣分은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이다.”⁷⁸⁾라고 하여 本人의 臨床經驗을 근거로 하며 重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治燥結方」에서는 攻結通便, 降胃安沖하는 效能이 있는⁷⁹⁾ 赭石攻結湯⁸⁰⁾을 소개하며 “乙卯년에

廣平에 머무를 때 갑자기 수레에 환자를 싣고 와서 치료해주시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신음이 그치지 않았고 음식물이 下脘에 걸려있어 아주 고통스러워 여러 차례 醫師를 불러 치료하면서 1劑에 大黃을 1.5兩까지 썼지만 내려가지 않았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服用한 藥이 맺힌 곳에 이르는 것이 느껴지면 곧 上逆하여 토해내었고 음식도 그러하였다. 이때 上焦에 심한 煩躁를 느꼈고 大便은 이미 10日이 넘도록 보지 못하였다. 診脈해보니 비록 微弱했지만 脈搏數는 빠르지 않았고 깊이 누르면 뿌리가 있기에 마음대로 攻下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病은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服藥中에 猛烈한 藥을 사용했기 때문에 복용할 때는 내가 친히 處方이 타당한지 지켜보았다. 그곳에 머무른 지 4시간이 되자 멎은 곳이 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이 처방에서 乾薑을 빼고 赭石을 3兩, 朴硝를 8錢으로 고쳐서 복용시켰더니 잠시 후에 뱃속이 울리면서 2시간 반이 지나자 大便이 통하면서 나왔다. 한달 남짓 후에 환자가 전과 같은 結證을 앓게 되었으나 이전의 處方을 사용하여 나왔다.”⁸¹⁾라고 醫案을 덧붙여 赭石의 重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臨證時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鑛物性 藥材를 重用하는 張錫純의 獨創的인 시도는 끊임없는 研究와 勞力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의 大膽하면서도 獨創的인 見解는 우리에게도 많은 배울 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版社. 2003. p.330.

76) 總主編, 康鎮彬. 張錫純醫方精要.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3. p.170.

7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46. : “一人年四十餘. 爲風寒所束不得汗, 胸中煩熱, 又兼喘促. 醫者治以蘇子降氣湯, 兼散風清火之品, 數劑病益進. 診其脈, 洪滑而浮, 投以寒解湯, 須臾上半身即出汗. 又須臾, 覺藥力下行, 至下焦及腿亦皆出汗, 病若失.”

7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7. : “赭石誠爲救頭扶危之大藥也. 乃如此良藥, 今人罕用, 間有用者, 不過二三錢. 藥不勝病, 用如不用同也. 且愚放膽用至數兩者, 非鹵莽也. 誠以臨證既久, 凡藥之性情能力及宜輕宜重之除, 研究數十年, 心中皆有定見, 而後敢如此放膽, 百用不至一失. 且赭石所以能鎮逆氣, 能下有形瘀滯者, 以其饒有重墜之力, 於氣分實分毫無損.”

79) 總主編, 康鎮彬. 張錫純醫方精要.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

8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90. : “生赭石 2兩, 朴硝 5錢, 乾薑 2錢, 甘遂 1.5錢. 治宿食結於腸間不能下行, 大便多日不通. 其證或因飲食過度, 或因恣食生冷, 或因寒火凝結, 或因嘔吐即久, 胃氣衝氣皆上逆不下降.”

8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91. : “乙卯之歲, 客居廣平, 忽有車載病人, 造寓求診者. 其人年過五旬, 呻吟不止, 言自覺食物結於下脘, 甚是痛楚, 數次延醫措置, 一劑中大黃用之兩半不下. 且凡所服之藥, 覺行至所結之處, 即上逆吐出, 飲食亦然, 此時上焦甚覺煩躁, 大便不通者已旬日矣. 診其脈, 雖微弱, 至數不數, 重按有根, 知猶可任攻下. 因謂之曰, 此病易治. 特所服藥中, 有猛悍之品, 服藥時必吾親自監視方妥. 然亦無須久淹, 能住此四點鐘, 結處即通下矣. 遂用此湯去乾薑, 方中赭石改用三兩, 朴硝改用八錢, 服後須臾, 腹中作響, 遲兩點半鐘, 大便通下而愈. 後月餘, 後患結證如前, 仍用前方而愈.”

(2) 動物性 藥材의 好用

張錫純의 用藥의 特長 중 하나는 動物性 藥材를 好用了다는 것이다. 動物性 藥材는 主로 行氣의 効能이 탁월하거나 破瘀血의 効能이 있는 藥材들을 자주 사용했으며 이들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藥力이 和平하고 効果가 탁월하다 主張하였다.

① 蜈蚣의 사용

張錫純은 「蜈蚣解」에서 臟腑와 經絡에 走竄하는 힘이 강하여 氣血凝滯를 풀고 毒을 잘 푸는 성질이 있어 一切瘡瘍의 毒을 없애는 効能이 있다고 하였다⁸²⁾. 그는 또한 逐風湯⁸³⁾에 蜈蚣을 사용하면서 蜈蚣의 効能에 대해 “蜈蚣은 風을 가장 잘 거두어들이고 經絡 臟腑를 뚫고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신경을 두루 안정시키는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性質이 매우 和平하여 여덟가지 이를 복용하여 眩暈이 나타난 경우가 없다.”⁸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蜈蚣의 風邪를 내모는 藥力은 근본적으로 다른 약과는 다르다. 또 단지 風을 치료하는 効能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나는 瘡癰이 초기에 아주 심할 경우에는 항상 託毒시키는 藥에 蜈蚣을 가하여 効果를 보았다. 비록 本草書에서는 유산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中風抽掣에 다른 藥을 복용하여 効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무방하다.”⁸⁵⁾라고 하여 臨床에서 蜈蚣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② 鷄內金の 사용

張錫純은 「治陰虛勞熱方」에서 “鷄內金은 닭의 脾胃로 그 속에 있는 사기, 돌, 쇠붙이 등을 모두 消化 시킬 수 있게 하니 有形의 鬱積을 잘 消化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성질이 매우 和平하며 兼하여 脾胃로 脾胃를 補하는 妙함이 있으니, 脾胃를 補하는 藥을 도와 기이한 効能을 발휘하니 다른 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⁸⁶⁾라고 하였고, “鷄內金の 성질은 매우 和平하고 有形의 鬱積을 잘 풀어주므로 오랫동안 복용하면 堅結된 瘀血이 자연히 사라진다. 게다가 이 처방과 健脾滋陰시키는 藥을 같이 사용하면 새로운 血이 활발히 생성되는데 새로운 血이 생성되면 자연히 瘀血이 풀리게 된다.”⁸⁷⁾라고 하여 積聚와 瘀血을 푸는 要藥이라고 하였으며, 鷄胫湯⁸⁸⁾에서는 鷄內金을 君藥으로 사용하면서 “瘀積을 잘 없앨 수 있어 脾中으로 곧바로 들어가 回血管의 瘀滯를 없앨 수 있다.”⁸⁹⁾하면서 鷄內金이 有形의 鬱積을 잘 消化시키는 것을 兼하여 脾中の 回血管이 瘀滯로 인해 血이 流通되지 않은 증상을 治療하는 効能이 있어 脾胃의 문제로 발생하는 각종 疾病을 治療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鷄內金解」에서 “沈陽 城西의 龔慶齡씨는 30세였는데 胃脘 부위에 단단한 것이 막혀있는 것이 數年이나 되었다. 식사량이 줄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來院하여 診료를 받았는데 脈象은 沈하면서 약간 弦하였고 右側 脈이 더욱 심하였다. 이에 鷄內金 1兩과 生酒曲 5錢을 사용하였더니 數劑를 복용하고 단단한 것이 모두 없어졌다.”⁹⁰⁾ 등의 醫

8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20. : “蜈蚣味微辛, 性微溫. 走竄之力最速, 內而臟腑, 外而經絡, 凡氣血凝聚之處皆能開之, 性有微毒, 而轉善解毒, 凡一切瘡瘍諸毒皆能消之.”
8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89. : “治中風抽掣及破傷后受風抽掣者. 生箭芪 6錢, 當歸 4錢, 羌活 2錢, 獨活 2錢, 全蠍 2錢, 全蜈蚣 大者兩條.”
8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89. : “蜈蚣最善搜風, 貫串經絡, 臟腑無所不至, 調安神經又具特長. 而其性甚和平, 從未有服之覺眩暈者.”
8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89. : “審斯, 則蜈蚣逐風之力, 原迥異于他藥也. 且其功效, 不但治風也, 愚于瘡癰初起甚劇者, 恒加蜈蚣于托藥之中, 莫不隨手奏效. 雖本草謂有墜胎之弊, 而中風抽掣, 服他藥不效者, 原不妨用.”

8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1. : “鷄內金爲鷄之脾胃, 中有瓷石銅鐵皆能消化, 其善化有形鬱積可知. 且其性甚和平, 兼有以脾胃補脾胃之妙. 故能助健補脾胃之藥, 特立奇功, 迥非他藥所能及也.”
8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3. : “鷄內金性甚和平, 而善消有形郁積, 服之既久, 瘀血之堅結者, 自然融化. 矧此方與健脾滋陰之藥同用, 新血活潑滋長, 生新自能化瘀也.”
8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70. : “治氣鬱成臑脹, 兼治脾胃虛而且鬱, 飲食不能運化.”
8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70. : “其善化有形瘀積可知. 故能直入脾中, 以消回血管之瘀滯.”
9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案을 덧붙여 그의 主張을 뒷받침했다.

③ 水蛭의 사용

水蛭에 대해서는 “仲景의 抵當湯, 大黃蟅蟲丸, 百勞丸은 모두 水蛭을 사용하고 있는데, 後世에는 그 성질이 猛烈함을 두려워하여 사용하는 이가 드물다. 이는 水蛭의 性質을 알지 못해서이다. … 오직 水蛭은 味가 鹹하여 血分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氣分에는 조금도 損傷이 없다. 또 복용 후에 腹痛과 開破를 느끼지 못하지만 瘀血은 모르는 사이에 無形으로 消滅되므로 정말 좋은 藥이다.”⁹¹⁾라고 하고 또한 “나는 婦女가 月經이 없고 癥瘕가 있는 증상을 치료할 때 脈이 虛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水蛭만을 갈아 가루를 내서 하루에 두 번씩 1錢을 물과 함께 먹게 한다. 數年 동안 瘀血이 堅結된 證이라도 한달이면 모두 없어진다.”⁹²⁾라고 하여 水蛭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治女科方」에서 그가 제시한 理衝丸⁹³⁾은 補氣補血, 攻積消瘀의 效能이 있고, 婦女가 月經이 없고 產後에 惡露가 그치지 않아 멍쳐서 癥瘕가 된 것을 치료하는데⁹⁴⁾, 水蛭을 1兩을 사용하여 瘀血을 없애지만 동시에 新血을 傷하지 않게 하고 또한 氣分의 損傷이 없도록 하였다.

6) 代用藥의 개발

『醫學衷中參西錄』에서는 특정 藥材가 眞品인지 의심스럽거나 혹은 藥材가 없을 때 이를 대신하여 다른

2006. p.319. : “沈陽城西龔慶齡, 年三十歲, 胃脘有硬物杜塞, 已數年矣. 飲食減少, 不能下行, 來院求爲診治, 其脈象沉而微弦, 右部尤甚, 爲疏方用鷄內金一兩, 生酒曲五錢, 服數劑硬物全消.”

9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208. : “仲景抵當湯, 大黃蟅蟲丸, 百勞丸, 皆用水蛭, 而後世畏其性猛, 鮮有用者, 是未知水蛭之性也. … 惟水蛭味鹹專入血分, 於氣分絲毫無損. 且服後腹不覺疼, 并不覺開破, 而瘀血默消於無形, 眞良藥也.”

9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21. : “愚治婦女月閉癥瘕之證, 其脈不虛弱者, 恒但用水蛭軋細, 開水送服一錢, 日兩次, 雖數年瘀血堅結, 一月可以盡消.”

93) 水蛭(不用炙) 1兩, 生黃芪 1.5兩, 生三棱 5錢, 生莪朮 5錢, 當歸 6錢, 知母 6錢, 生桃仁(帶皮尖) 6錢

94) 總主編, 康鎮彬, 張錫純醫方精要.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3. p.367.

藥材를 사용하도록 한 기록이 있다. 이는 臨床時 필요한 藥材가 없을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效能이 다른 藥材를 사용하여 기대하지 않은 效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酸石榴의 代用藥

「治溫病方」의 滋陰固下湯과 「治傷寒溫病同用方」의 白虎加人參以山藥代粳米湯에는 酸石榴가 없을 경우에 牡蠣 1兩을 대신하여 사용하거나⁹⁵⁾ 龍骨과 牡蠣를 각 5錢씩 사용하여 이를 代替하도록 하였다⁹⁶⁾. 酸石榴는 性味가 溫하고 酸味를 가지고 있어 消瀉, 오래된 痢疾, 자궁출혈, 帶下를 치료하는 效果를 가지고 있다⁹⁷⁾. 한편 牡蠣는 性味가 鹹, 寒하며 縮小便, 止帶下하는 作用을 하며⁹⁸⁾, 龍骨은 性味가 甘澁, 平하고 收斂固澁하는 作用을 한다. 또한 龍骨과 牡蠣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久泄久痢, 便數脫肛, 尿血, 便血, 崩漏帶下 등에 效果가 있다⁹⁹⁾. 이처럼 效能을 고려할 때는 酸石榴의 效能과 牡蠣, 또는 龍骨과 牡蠣의 效能이 相通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酸石榴의 溫한 성질과 牡蠣의 寒한 성질, 그리고 龍骨의 平한 성질과는 거리가 있어 代替하여 사용할 시는 전체적인 處方의 성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白茅根의 代用藥

張錫純은 「葦莖, 蘆根解」에서 蘆根에 대해 “성질이 茅根과 비슷하여 茅根을 써야 하는데 신선한 것이 없다면 鮮蘆根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¹⁰⁰⁾라고 하였다. 白茅根은 性味가 甘, 寒하며 주로 涼血로 止

9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50. : “若無酸石榴, 可用牡蠣一兩代之.”

9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65. : “如無酸石榴時, 可用龍骨牡蠣 各五錢代之.”

97) 이경순, 신민교 외. 중약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경담. 1999. 제 5권. p.2058.

98)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서울. 醫聖堂. 2001. p.147.

99) 陳維華 外. 藥對論. 서울. 一中社. 2003. p.266.

10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04. : “其性頗近茅根, 凡當用茅根而無鮮者, 皆可以鮮蘆根代之也.”

血하고 淸熱로 利水하는 作用을 한다¹⁰¹). 또한 蘆根은 性味가 甘, 寒하며 淸熱生津의 作用을 한다¹⁰²). 性味の 측면에서 보면 두 藥材는 모두 甘寒한 性질을 가지고 있어 相通하는 면이 있지만 茅根의 利水의 作用과 蘆根의 生津作用은 相反되는 내용이다. 또한 張錫純이 處方을 運用할 때 대부분 鮮茅根을 사용한 것을 미루어 보면 茅根을 사용할 때 津液을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鮮茅根이 없을 경우에 乾茅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과 茅根의 효능에 利小便을 잘한다고 언급한 점¹⁰³)을 고려해보면 茅根을 대신하여 蘆根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竹茹의 代用藥

「論鼠疫之原因及治法」에서 張錫純은 鼠疫의 初期에 王孟英의 治結核方 加減이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¹⁰⁴) 加減例에 嘔逆을 할 경우 甘草를 빼고 鮮竹茹 1兩을 加하는데 만약 鮮竹茹가 없을 경우에는 青黛 3錢으로 代替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⁵). 竹茹는 性味가 甘, 微寒하며 淸熱로 除煩하고 化痰으로 止嘔하는 作用을 하여 胃의 熱로 嘔逆心煩, 食即吐, 舌苔黃, 口渴, 脈數 등의 증상을 治療한다¹⁰⁶). 또한 青黛는 性味가 鹹苦, 寒하며 涼血作用이 우수하고 胸膈의 熱痰을 消去하는 作用을 한다¹⁰⁷). 두 藥材를 살펴보면 青黛의 效能이 熱痰을 없애는 作用보다는 涼血作用에 치우쳐진 면이 없지는 않지만, 차가운 性질이 竹茹와 相通하며 淸熱除煩, 化痰하는 竹茹의 效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臨床에서 代用藥으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 羚羊角의 代用藥

張錫純은 羚羊角을 木의 性질을 가져 發表의 效能을 가지면서 동시에 性질이 涼하여 解毒을 하고, 癩疹을 治療하는 妙藥이라고 하였고, 木에 屬하므로 肝經에 잘 들어가 肝火가 熾盛하여 발생한 眼疾과 吐衄을 治療하는 妙藥이라고 하였다¹⁰⁸). 하지만 羚羊角이 위험한 증후를 治療하는 좋은 藥임에도 쉽게 구할 수 없는 貴한 藥材이므로 張錫純은 鮮茅根과 生石膏, 아스피린을 함께 사용하면 羚羊角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소개했다¹⁰⁹). 張錫純은 이 藥材들이 羚羊角을 代替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와 茅根이 少陽에 들어가게 되고, 石膏의 淸熱作用과 發表作用이 兼하게 되면 肝膽木性의 氣를 가지며 동시에 鎮肝膽하는 效能을 가질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¹¹⁰). 白茅根은 性味가 甘, 寒하며 주로 涼血로 止血하고 淸熱로 利水하는 作用을 하고¹¹¹), 石膏는 淸熱하는 代表 藥物로 두 藥物을 併用하면 淸熱하면서 동시에 涼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張錫純은 아스피린을 發汗, 散風, 除熱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므로¹¹²) 세 가지 藥材를 함께 쓰면 效能 면에서 살펴본다면 羚羊角을 代替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羚羊角解」에서 羚羊角이 退熱을 잘하지만 性질이 심하게 涼하지는 않

101)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서울. 醫聖堂. 2001. pp.371-372.

102)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서울. 醫聖堂. 2001. p.228.

10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04.

104) 金銀花二兩, 蒲公英二兩, 皂刺錢半, 粉甘草一錢.

10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483. : “嘔者, 去甘草, 加鮮竹茹一兩, 若無鮮竹茹, 可以淨青黛三錢代之.”

106)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서울. 醫聖堂. 2001. p.256.

107)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서울. 醫聖堂. 2001. p.214.

10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22. : “羚羊角天生木胎, 具發表之力, 其性又涼而解毒, 爲托表癩疹之妙藥. … 爲其性原屬木, 故又善入肝經以治肝火熾盛至生眼疾, 及患吐衄者之妙藥.”

10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76. : “羚羊角雖爲挽回險證之良藥, 然其價昂貴, 愚因臨證細心品驗, 遇當用羚羊角之證, 原可以他藥三種并用代之, 其藥力不亞羚羊角, 且有時勝于羚羊角, 則鮮茅根, 生石膏與西藥阿斯匹林并用是也.”

11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76. : “茅根稟少陽最初之氣故發生最早, 阿斯必林之原質存于楊柳樹皮中, 楊柳之發生亦最早, 故亦善入少陽也. 至石膏雖爲陽明正藥, 因其含有氧氣原質, 實善于淸熱, 而兼有發表之性, 凡藥性之能發表者, 皆與肝膽木性之喜條達者爲同氣, 且石藥質重, 兼有鎮肝膽之力.”

111)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서울. 醫聖堂. 2001. pp.371-372.

11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23. : “其性最善發汗, 散風, 除熱及風熱着于關節作疼痛.”

아 過量으로 사용해도 胃를 차갑게 하지 않아 泄瀉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다른 藥과는 다르다고 한 언급을 고려해 보면¹¹³⁾, 모근과 석고, 아스피린의 조합은 羚羊角의 涼한 성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效能과 성질을 고려한 羚羊角의 代用藥을 생각해본다면 淸熱涼血하는 성질을 가진 藥材와 辛涼解表의 성질을 가진 藥材를 조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III. 結論

『醫學衷中參西錄』을 통해 張錫純의 藥物運用に 대해 研究하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清代 末期 中西醫匯通派의 대표적인 인물인 張錫純은 그의 醫學思想의 근간을 『黃帝內經』과 『傷寒論』, 『神農本草經』에 두고 있으며, 끊임없는 研究를 통해 본인의 獨創的인 醫學思想을 완성하였다.

傷寒에 대해 張錫純은 『傷寒論』을 매우 중요시 하고 깊이 研究를 했으나 原文에 絜매이지 않고 本人의 獨創的인 觀을 세웠다.

張錫純은 각 本草의 성질을 『神農本草經』의 내용에 따라 인식하였으며, 『神農本草經』을 깊이 研究하여 『神農本草經』의 뜻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였고 또한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다.

張錫純은 西洋醫學을 적극 받아들여 이를 참고하여 醫學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는 그가 『醫學衷中參西錄』에 西洋藥의 效能을 밝혀 놓고, 韓藥과 洋藥을 併用하거나 本草를 化學的으로 해석하는 등을 시도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張錫純은 溫病을 독립된 질병의 범주로 생각한 것 보다는 傷寒의 범주 안에서 溫病을 해석하였는데, 『傷寒論』에 나와 있는 處方을 모두 溫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으며 傷寒方을 變通하여 溫病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張錫純은 다양한 藥材를 사용함으로써 藥物使用의 범위를 확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鑛物性 藥材와 動物性 藥材를 자주 사용한 점과 代用藥의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드러난다.

오랜 臨床經驗과 古典에 대한 깊은 研究를 통해 張錫純은 獨創的인 醫學思想과 用藥法을 도출하였고, 이는 韓醫學의 領域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後學들에게 많은 龜鑑이 되었다.

參考文獻

<논문>

1. 金亨泰, 尹暢烈. 張錫純의 大氣論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1. 14卷 2號. p.14.
2. 禹旻. 張錫純의 學術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1996. p.4.
3. 袁爭鳴. 張錫純運用白芍藥經驗探析. 中國中醫急證. 2005. 14卷 10期. p.995.
4. 陳群, 楊愛萍. 醫學衷中參西錄妙用石膏配伍特色. Journal of Practical Traditional Chinese Internal Medicine. 2003. vol 17. no 12. p.78.
5. 葉建紅. 張錫純常用藥對特色淺析. 甘肅中醫. 2001. 14卷 6期. p.64.
6. 郭海英, 曹進雷. 張錫純運用白虎湯方經驗淺析. 江蘇中醫. 1999. 20卷. 7期. p.6.
7. 張靈. 張錫純用經方之我見. 四川中醫. 2002. 20卷. 10期. p.7.
8. 劉充閩. 張錫純運用經方之成就. 時珍國醫國藥. 1999. 10卷. 11期. p.8.
9. 張祐彰. 張錫純의 傷寒論講義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卷. 2號. p.361.
10. 朴基兌. 張錫純의 心病理論과 證治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2008. p.1.
11. 안덕균. 氣味論에서 본 人蔘의 效能. 本草分科學會誌. 1992. vol 7. no 3. p.31.

<단행본>

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12, 29, 34, 37, 49, 70, 72, 128, 142, 143, 150, 199, 208, 248, 258, 277, 279, 285, 291, 310, 330, 343, 349, 358, 367, 385, 392, 395, 437, 444, 572, 764. pp.21-23, 90-91, 105-106, 130-135, 145-147,

11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6. p.322. : “所最異者性善退熱却不甚涼, 雖過用之不致令人寒胃作泄瀉, 與他涼藥不同.”

- 162-165, 188-191, 319-323, 388-389.
2.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 1期 卒業準備委員會. 醫學衷中參西錄. 서울. 醫聖堂. 1999. p.7, 9.
 3. 柳西河 外. 重訂醫學衷中參西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57. pp.449-450.
 4. 劉越. 張錫純醫案.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57, 195. pp.34-36.
 5. 總主編, 康鎖彬. 張錫純醫方精要.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3. p.170, 330, 367.
 6. 陳維華 外. 藥對論. 서울. 一中社. 2003. p.266.
 7. 김기욱, 김남일 外.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341-342.
 8.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서울. 醫聖堂. 2001. p.80, 147, 214, 228, 256. pp.371-372.
 9. 이경순, 신민교 外. 중약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9. p.2058.